

한 마리 나비의 소중한 날갯짓

나비가 나폴텐다. 곧 나비는 날개를 내젓는다. 힘찬 날갯짓에서 한 줄기의 미풍이 일렁인다. 미미한 바람이 머지않아 거센 폭풍우로 변한다. 강풍이 몰아치고 지나간 자리는 나비의 은은한 향이 맴돈다.

살랑이는 봄기운마저 얼어붙은 날이 있었다. 언니는 항상 집에 오면 침대에 흡입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잠깐이라도 옆에서 조잘대면 그세 코를 골골 돌아대며 다른 세상에 가있는 언니였다. 온몸에서 찌든 원내가 풍기고, 먼지란 먼지들은 다 들이마셨는지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마 누군가 언니의 꿈을 보노라면 공사장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사람으로 알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언니의 방에서 나왔다.

우리 집에서 첫째 딸인 언니는 직장 내에선 막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영화 제작부막내다. 제법 수능점수가 좋았던 언니가 취직 잘되고 좋아하는 과들을 다 제치고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영화과였다. 가족들은 안정적이고 취직이 잘 되는 소위 말해, ‘좋은 과’를 권했지만 영화가 좋다는 언니는 결국 영화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언니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에 전념하고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공사판의 노동자 같은데 언니 자신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일개 제작부막내이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어느 메인감독 못지않을 것이란 건, 가까이서 지켜보는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언니에게 모진 시련이 닥쳐왔다. 온몸을 땀으로 샤워하고 옷이 축축이 젖을 만큼 촬영 현장을 뛰어다니던 언니의 영화가 개봉했다. 그저 흥행위주의 영화가 아닌, 나비효과를 모티프삼아 나비를 이용해 사회를 풍자하는 고품격 퀄리티의 영화라며 내게 누누이 자랑하던 영화였던 것 같다. 하지만 개봉과 동시에, 언니의 영화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유출이 됐다. 그렇게 언니의 마음속에 사뿐히 날아다니던 한 마리의 나비는 새까만 돌풍 속에 유유히 사라졌다. 그날 처음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신입생활영화며 종강총회며 매일 같이 내 뺄면서 술이라곤 손도 대지 않던 언니의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을 보게 됐다. 그때 생각했다. 정말 영화란, 언니에게 인생이 구나. 언니는 매일같이 바람 빠진 풍선마냥 풀이 죽어있었다. 언니가 직접적인 영화관계자도 아

닐 뿐 더러, 말단 제작부 막내가 불법 다운로드로 퍼져가는 자신의 영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회사 측에서 강력대응으로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지만, 이미 퍼질 만큼 퍼져버린 언니의 영화는 돌이킬 수 없었다. 또 영화는 제작비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영화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질 못하면 차기 영화촬영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음영화를 걱정하고 있을 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언니. 영화 대박 전에 하는 액땜 같은 거 아닐까? 대박 징조 인가봐. 그러니까 너무 풀이 죽어 있지 마.”

측은하게 응크려 있던 언니는, 횡설수설한 내말에 느릿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비웃는 것만 같고.”

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이내 말을 잇는다.

“그냥 무료다운 클릭하나로 한 번 보고 휴지통에 버려질 우리 영화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언니는 구슬픈 어조로 내게 말했다. 그런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 나는 이번 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단순 유출사건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2시간이란 러닝타임은, 200일이 넘는 시간들 속의 언니를 비롯한 수백 명의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우스 클릭하나로 언니와 스태프들의 열정에 침을 뱉은 격이었다. 저작권 침해는 그저 돈과 직관되는 문제에서만이 아닌 창작물에 쏟아 부은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였다. 몇 년 전부터 불법다운로드 반대 운동과,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운 캠페인,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불법다운로드 상황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다운로드가 우리의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모두 알 것이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불법과 무단으로 도용하고 배포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다. 하지만 개인의 일러스트를 의류기업에서 도용한 것처럼, 불법 배포와 도용과 같은 거창하고 사전적인 것만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의식속에 고착화된 습관인 불법다운로드가 저작권침해 사례 중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다.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저작권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건,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이란 걸 인지하면서도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저작권보호와 침해에 관한 교육과 지식을 갖추지 않은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어있고 되레 합의금을 노리는 어른들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나는 그간 노래며, 드라마며, 영화며 각종 무료다운로드 사이트

에서 밥 먹듯이 다운버튼을 클릭하던 내 손가락이 부끄러웠다. 아니, 내가 부끄러웠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언니의 가슴에 비수를 꼽은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날 소리 내어 우는 언니의 뒤로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려야 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다운로드가 판을 치고 있다. 물론 그간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불끈 운동’과 ‘굿 다운로드’ 홍보 관련 포스터를 학교 게시판에 붙였다. 익숙한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고 한번이라도 포스트의 글들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이다. 그리고 주의 친구들에게는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어떤 친구는 내가 홍보대사라도 되냐며 장난스레 비아냥거릴 정도로 말이다. 내 꾸준한 잔소리에 귀에 딱지들이 들러붙었는지, 친구들도 제법 저작권보호에 관한 지식이 형성되고, 불법다운로드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듯 했다. 나뿐만아니라 주위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저작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를 알고, 저작권보호와 침해에 관한 뚜렷한 지식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으며 저작권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뿌듯함이 물밀 듯 밀려왔다. 비록 지금은 작은 파급력이겠지만 이것이 부디 한 마리의 거대한 나비가 되어 내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키길 간절히 바란다. 그때 날지 못한 언니의 나비가 언젠가 다시 훨훨 날아 비상할 수 있도록 내 나비의 날갯짓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오늘도 살랑이는 나비의 날갯짓이 꽃내음을 가득 실은 채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저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